

8월 29일은 일제가 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공포한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104년전인 1910년 8월 22일 일제는 군사적위협과 같은 공갈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는 우리 민족의 거세찬 항거가 두려워 29일에야 이른바 《천황》의 《칙령》으로 공포하였다. 1905년 《을사5조약》의 날조로 조선을 사실상 식민지로 강점한 일제는 수년후 이 《조약》의 날조로 형식상으로나마 존재하던 조선봉건국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조선을 저들의 지배밑에 두었다.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와 슬기로운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외세의 비참한 노예가 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기때문이었다.

우리 나라 역사에서 500여년간 존재해온 조선봉건정부는 사대와 외세의존에만 매달리고 음흉영월로 세월을 보내면서 제 힘을 기울일 줄을 안하였다.

그러다나니 국력은 나날이 쇠퇴해지고 변변한 자기의 군대조차 가지지 못하여 대포를 끌고온 침략자들에게 항거조차 제대로 못해보고 졸지에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겼던 것이다.

그러던 우리 민족, 지구상에서 그 이름마저 빛을 잃었던 조선이 1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계에 빛을 뿌리고 있는 것인가.

당당한 자주강국, 핵보유국, 인공위성 제작 및 발사국이 되어 그 위용 만방에 떨치고있는 것이다.

오늘의 밝은 세상에서도 힘이 약하면 침략자들에게 먹혀야 하는 힘의 법칙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전 유고슬라비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 적지 않은 나라들의 실례가 이것을

민족의 백여년전과 오늘

잘 말해주고있다.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민족의 존엄과 안명은 자기의 강한 국력, 군력에 의해 담보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하다면 공화국이 지닌 이 위대한 불패의 군력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하늘이 준것도 아니다 그 누가 선사해준것도 아니다. 그것은 철두철미 자력의 정신과 투쟁으로 이루어진것이다.

일찌기 빼앗긴 나라는 남에게 의존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민족의 힘으로,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백두광야에서

퍼어린 항일혈전을 벌리시어 강도일제를 무찌르시고 나라를 해방해주시었다.

이 나날 망국은 순간이며 북국은 천년이라는것을 빼에 아끼게 새겨두신 주석께서는 해방후 군건설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여 미국의 무력침략으로부터 공화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병진로선도 제시하시며 공화국을 자위의 강국으로 일떠세워주시었다.

아버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선군위업을 계승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

49(1960)년 8월 25일 선군령도의 거룩한 첫 자욱을 새기신 그날부터 나라의 군력강화를 위해 선군장정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였다. 판문점과 초도, 351고지와 오창으로서 인민군군인들에게 조국수호정신을 심어주고 멸적의 힘과 지략도 안겨주신 장군님이시다. 그이의 정력적인 선군령도에 래 공화국은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다시는 조선을 침략할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 자위의 핵강국으로 우뚝 올라서게 되였다.

공화국의 군력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선군령도에 의하여 더욱 억척같이 다져지고있다.

최고사령관으로서 첫 군부대시찰을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새기심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걸으실 자신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피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께서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오성산과 철령, 무도

봉초소로 선군장정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며 부대의 싸움준비완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이끄시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시여 강성국가건설과 민족의 천만년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었다.

지금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모한 침략소동은 도수를 넘어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이른바 《맛가짐의 강철예제전략》에 따라 공화국을 핵선제타격하기 위한 합동실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핵탄을 적재한 미국의 전

략폭격기들이 쉬임없이 조선반도 상공에 날아와 우리 민족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그러나 천출명장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선군으로 다져진 막강한 군력이 있어 공화국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변명은 확고히 담보되어있다.

지난 6월말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로케트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가장 소중한 평화적환경은 그 누가 마련해주는것도, 그 무엇을 팔고 살수 있는것이 아니라고, 진정한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 못하게 자기의 힘이 강할 때에만 지켜지고 오직

자기의 힘에 의하여서만 담보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사수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역제력을 천백배로 더욱 다져나가는데 최대의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뜻깊은 전승절인 7.27을 계기로 세찬 섬광을 내뿜으며 창공높이 날아오른 전술로케트들의 장쾌한 광경은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려는자들은 그가 가까이에 있던 지구상 한쪽끝에 있건, 그것이 개별목표이건 집단목표이건 마음먹고 골라가며 타격할수 있는 초정밀화된 여러가지 화력타격수단들이 완비되었음을 실증해주며 우리 겨레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조선은 이제 힘이 약해 남에게 먹혀야 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아니다. 제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침략의 야성도 송두리채 날려보낼수 있는 자위의 역센 강국이다. 이런 강력한 공화국이 있어 겨레는 배심든든하게, 신심스들이 자주통일의 한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시대와 력사발전에서 청년들이 노는 역할은 자못 크다. 그들에 의해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흥망도 많이 좌우되게 된다.

세상을 둘러보면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들이 웅망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고있는 나라나 지역들이 적지 않다.

이와 반면에 공화국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의 믿음직한 역군이 되고있다.

어떤 수령,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청년들의 운명과 전도, 사회발전에서 노는 역할이 달라진다.

청년문제를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과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청년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절세위인들 각별한 사랑과 관심속에 공화국의 청년들은 그 어느 시기에도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주도하고 선도해나가는 주력군, 기둥으로 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화성의숙에서 새세대청년들을 묶어세우시여 깃잡힌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전위조직을 내오시였으며 조선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 청년중시정책을 그대로 이으시여 청년문제해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청년들이 민족자주위업실현에서 자기의 시대적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어느해 청년절이었다. 그 날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간이 고난과 시련속에서 어떻게 강철과 같이 단련되는가를 보여주는 한 외국영화에 대해 상기하시면서 사실 청년영웅도로건설에서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고생을 했다고, 우리 청년들처럼 훌륭한 청년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하시었다.

주체98(2009)년 4월에도 그이께서는 우리에게는 수 천만금의 재부가 있는것보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든든히 무장한 청년대오를 가지고있는 것이 더 귀중하다. 재부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있는 나라고 하여도 청년들이 혁명사상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에 견디내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우리는 주체사상으로 든든히 무장한 청년들의 대부를 가지고있기에 든든하다고 하시었다.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미래의 주인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는것보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든든히 무장한 청년들의 대부를 가지고있기에 든든하다고 하시었다.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미래의 주인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는것보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든든히 무장한 청년들의 대부를 가지고있기에 든든하다고 하시었다.

교육과 인재를 국가발전을 이룩하려는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력사에 선결경일이 있었다는 명언들치고 후대교육을 소홀히 한 이는 없었다.

그러나 만경대가문의 지원의 뜻처럼 심오하고 원대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실천으로 구현하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중시, 미래사랑에는 비길수가 없다.

평양의 새살림거리에 있는 김형직사범대학정문에는 대학원관이 큼직하게 새겨져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손수 남긴 글밭을 그대로 정갈한 석재에 부각한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스무해전인 1994년 7월 아버지수령님께서 는 그 대학 교원, 학생들의 소망을 헤아리시여 친히 현관을 써주시었다.

그날 그이께서는 대학원관을 놓고보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고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지원의 뜻을 일생의 좌우명

으로 삼고 집에는 물론 순화학교와 명신학교 등 이르는 두 글자를 붙글쳐로 큼직하게 써붙여있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었다.

지닌이란 문자그대로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생전에 늘 사람은 원대한 뜻을 가

질 수령님께서 는 나에게 나라가 독립하면 하늘을 번듯하게 띄어놓고 후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후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현관을 세로로

막고 길이 남게 되었다. 그 친필현판에는 해방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480여 차례 걸쳐 170여개의 교육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며 민족교육발전에 기울으신 수령님의 로고와 헌신이 깃들어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지나온 애국의 력사와 고귀한 전통은 빛나게 계승될 때 더 밝고 양양한 전도를 기대할수 있다.

아버이수령님의 뜻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원의 사상은 아버지수령님의 대를 거쳐 자신의 대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결을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결을

힘은 부문의 선두에 세워주시는 령도자의 두터운 믿음과 기대속에 공화국의 청년들은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서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자랑될것이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하는 마식령속도의 창조자들도 청년들이고 우주를 정복하고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도 언제나 그들이 있다.

령도자의 뜻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힘있고 활력있는 청년들이 있기에 공화국은 젊고 미래는 창창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도 머지않아 이루어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강성국가건설에 앞장설 결의에 충만되어있는 청년학생들

떠진다고 하시면서 교육발전과 후대육성사업에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오늘 공화국에서 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후대중시, 미래사랑의 크나큰 로고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반적12년제무교육제가 새로 실시되어 교육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의 능력있는 인재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로부터 한해 일을 잘하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고 10년을 계획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하며 100년을 내다보면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천도개벽한 섬마을의 학교로부터 도시에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의 교육자살림집들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에 펼쳐지는 교육중시, 후대사랑의 아름다운 현실에서 사람들은 지원의 뜻으로 비약하며 흥하는 민족의 밝은 앞날을 보게 되는 것이다.

본사기자 리설

숭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쳐라

폭우속을 날은 비행기

주체83(1994)년 7월초 어느날 강원도의 한 산간마을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났다. 그날로 의료진은 구급조치를 취했으나 정상체중에 못미치는 아기들의 몸상태는 시원치 않았다. 피덩이 같은것들을 꽤 살려낼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산모는 물론 온 동리사람들의 하나같은 우려와 위구였다. 장마에 의해 길이 험하여 오도가지도 못하는데 날이 바뀌면서 의사들의 초조감도 여간 아니었다. 그런데 하늘이 더 컴컴해지며 번개가 치고 우리가 울면서 대들기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누구보다 크나큰 상실의

체육강국건설의 길에서

은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키고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공화국을 체육강국의 지위에 하루빨리 올려세우도록 하자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이고 결심이다. 그이의 체육강국건설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지난해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70여치의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금메달 160여개를 포함한 도합 380여개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체육강국으로 도약하는 조선의 발전상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체육발전을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도를 제시하시였으며 날과 달을 이어 체육부문사업을 세심히 지도하고계신다.

지난 8월 중순 어느날 그이께서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녀자축구집결영기를 지도하시였다. 그날 모든 선수들은 국경기를 앞두고 평시에 편마한 자기들의 기술과 전술 및 육체적능력을 보여주며 완강경에서 우월하게 드높은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이미 국가종합팀 녀자축구집결영기를 보아주신데 이어 그날 녀자축구영기를 지도하신 원수님께서는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더욱 완성하여 축구기술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훈련에 더 큰 박차를 가하여 앞으로 있게 될 국제경기에서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남김없이 펼칠

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국제경기에 출전할 녀녀 축구선수들의 집결영기를 지도하시며 체육기술을 부단히 발전시키고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힘있게 떨치도록 보살펴 주시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고무격려는 체육부문의 모든 감독들과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국제경기에 참가할 축구 선수들의 경기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나는 체육강국건설을 결심하신 그이의 구상과 체육발전에 기울이시는 로고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최근에만도 국가종합축구단, 평양체육단, 압록강체육단을 비롯한 여러 체육단의 축구장들에 사제경기후변화에 구애되지 않는 인공잔디를 형성하게 된것도 그이께서 취해주시는 조치에 따른것이다. 훈련조건이 개선되어 선수들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술발전속도가 빨라졌으며 여러가지 수단들에 의한 훈련효과도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되었다.》

한때 국가종합팀선수로 활약하며 아시아축구계의 철벽의 방어수로 유명했던 축구전문가인 인민체육인 탁영빈의 소감이다.

《요즘 레스링, 럭비를 비롯한 여러 종목별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의 훈련을 보면서 나는 생각이 많다. 청춘거리체육촌, 5월1일경기장, 룡라인민체육공원을 비롯해서 새로 건설되거나 보다 현대적으로 개건되는 체육시설 하나하나에 나라의 체육발전에 기울이시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구체적인 보살핌이 깃들여있다. 우리 체육관도 그이의 지도밑에 구기종목을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경기들과 근로자들의 대중체육활동을 도모할수 있게 다기능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체육관으로 일신되게 되었다.》

평양체육관 책임일군의 한 사람인 홍인철의 말이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체육강국건설을 위하여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 전체 인민이 긴장한 체력을 소유하고 생기와 활력에 넘쳐 부강조국건설에 기여하도록 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조선을 체육강국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예술의 비범성에 대해 다시금 가슴뜨겁게 체험하게 되는것이다.

국제경기를 앞둔 축구선수들의 경기를 지도하시며 나라의 체육기술훈발전을 위해 하시어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선의 레일을 그려보았다.

그날의 축구경기장을 힘차게 달린 선수들의 보폭에서 령도자의 발걸음따라 국제무대에서 우상을 펼칠 체육인수들의 미더운 모습을 보았고 모든 사람들이 체육활동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체육의 나라, 체육강국의 레일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확실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김철진